

# 전주시민 · 후원자 모두가 '엄마'

## 시, '엄마의 밥상' 시행 3주년 맞아 '엄마의 밥상 · 지혜의 반찬 토크콘서트' 개최

전주시가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시행 3주년을 맞아 그간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함께 차려온 후원자들과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6기 첫 결재 사업인 '밥 굵은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하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굵은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차리는 따뜻한 밥상이다.

시는 지난 20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에서 엄마의 밥상 시행 3주년을 기념해 그간 엄마의 밥상 사업을 후원해 온 각계각층의 후원자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활동들을 되돌아보는 '엄마의 밥상 · 지혜의 반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엄마의 밥상은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18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시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후원과 개인 정기후원, 기관 등의 성금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280여명에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새벽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이러한 엄마의 밥상 사업에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으로 현재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5억8,000여 만원이 모여져, 대상 아동들에게 아침 도시락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과일과 유제품 등의 간식, 방학 중 부식, 생일케이크, 명절 음식 등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기적인 소액기부를 꾸준히 해온 개인을 포함해, 성금을 기부한 기업체 관계자와 육가공품 및 친환경계란 등 물품후원자 등이다. 특히, 이날 멀리 울산에서 온 한 후

원자는 "전주시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엄마의 밥상에 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100년간 후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따뜻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당일 조리한 도시락과 반찬을 지원하는 '엄마의 밥상'은 사업시행 초기 제기됐던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며 어느덧 대한민국 지방자치시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남부시장 '전통시장 가을축제'

### 야시장 개장 3주년 맞아 29일까지 진행

전주 남부시장이 갈수록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한민국 대표사례로 손꼽히는 야시장 개장 3주년을 맞아 축제의 장이 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남부시장은 지난 20일 야시장 개장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가을축제는 가을여행 주간(10.21~11.5, 16일)을 맞아 전주 남부시장을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 400여 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3년 안전행정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4년 10월31일 문을 열었으며, 독특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인터넷, SNS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평균 6~7,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를 방문하면 꼭 방문해야 할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남부시장 야시장은 개장 이후 인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간 문화콘텐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전주 남부시장은 이번 축제에 지역 거점시장으로 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영창호 납북어부 4명 49년만에 무죄 선고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돼 돌아오지 못한 반공법과 수산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영창호 납북어부 4명이 4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관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징역살이를 한 영창호 납북선원 정삼근(75)씨, 김기태(77)씨와 이미 고인이 된 고 강인준씨, 고 유재철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말 어선 영창호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강제로 납북돼 4개월 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나 이듬해 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영창호를 타고 있었던 선장을 비롯해 선원 모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경찰서 등에서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소된 후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영창호에 함께 탔던 박춘환(71)씨, 고 오경태씨, 고 허태근씨 등 납북 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1968년 영창호 납북어부 8명 중 7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직 무죄를 선고 받지 못한 고 김용태씨에 대한 재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기자



49년 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의 가족들이 49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웃고 있다.

##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30대 사망

남원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55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6월 15일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 중이던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7시에 같은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B씨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취침한 뒤 점심시간이 다가와 함께 수용 중이던 유치인이 A씨를 깨웠으나 의식이 없어 이를 경찰관에게 알렸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입감된 후 가슴과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병원을 다니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했다.

사망 당일 전날에도 치과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 병원 응급실서 소란 피운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복합 수술을 하려면 침대를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로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주시, TPO 총회서 '비빔밥 퍼포먼스'

### 환영만찬에 전주비빔밥 200인분 초대돼... 전주홍보관 설치 관광자원 홍보

아시아·태평양 도시가 한자리에 모인 제8회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에 전주비빔밥이 초대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동안 경남 통영시에서 진행된 '제8회 TPO 총회' 환영만찬에 전주비빔밥 200인분이 초대돼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화합과 활성화를 위한 전주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TPO총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81개 회원도시, 40개 민간회원 500

여명이 참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TPO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시는 이번 TPO총회에서 통영시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전주비빔밥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해 제공, 지난 19일 환영만찬 퍼포먼스 이벤트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통영시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제8회 TPO총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TPO Travel Trade 전주홍보관'이 설치돼 참석한 국내·외 TPO 회원도시와 여행사, 관광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주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마케팅이 펼쳐졌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이 참석한 시장원탁회의와 제30회 운영위원회, 환영만찬 등이 펼쳐진데 이어, 20일에는 도시브랜드와 관광활성화 사례 등이 소개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TPO총회에 참가해 TPO 주요 회원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전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연합동조합**